

경상도는 어쩌다 섬이 되었을까



**이훈재의
세상만사**

주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지난주 토요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이날은 노 전 대통령 기일(忌日)이었다. 그가 홀연히 떠난 지 어느덧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는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이다. 추도식에 참석한 이들은 저마다 '노무현 정신'을 기렸다.

그들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기득권 문화를 깨부수고, 원칙과 신뢰의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더하자면 '지역주의 타파'를 들 수 있겠다. 그것은 '노무현 정신'의 고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다. 생전에 그가 텃밭을 버리고 스스로를 험지와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도 그 때문 아니었던가. 그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지만 수없이 깨지고 또 깨지면서도 역사의 파

도에 몸을 실었다.

생각해 보면 '바보 노무현'은 염치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았다. 그가 파렴치한 정치인이었다면 어찌 부임이바위에 서 뛰어내리는 그런 마지막 선택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1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며 그가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지역주의는 어느 정도나 극복됐을지, 잠시 생각해 본다.

지역주의란 '같은 지방 출신자끼리 동아리를 지어 다른 지방 출신자들을 배척, 비난하는 사회 병리 현상'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멀리 고려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 태조 왕건(王建)이 몸소 지은 유훈(遺訓)인 '훈요십조(訓要十條)'가 그것이다.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한 열 가지 조항 중 그 여덟 번째에서 왕은 이렇게 말한다.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외(外)의 산 형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식 또한 그러하니……" 태조 왕건은 고구려·백제권 유민들의 힘을 합하여 신라를 무너뜨렸으나, 신검(神劍)의 끈질긴 저항에 감정을 품고 백제권 유민에 대하여 차별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지역 의식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정치에 악용된 것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였다. 1963년 전라도 농촌의 몰표에 힘입어 당선될 수 있었던 그는 70년대 들어 선거가 불리해 지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언젠가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지역주의 망국병이라는데

"이효상(1906~1989)은 지역감정 악용의 비조(鼻祖)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가 맞붙은 1971년 7대 대선 당시, 공화당의 이효상 국회의장은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 이효상이 지역감정 조장의 호시(囃矢)라면 김기춘은 그 종결자(終結者)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맞붙은 1992년 14대 대선 당시,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다. 김기춘을 비호한 부산의 각 기관장들이 다 모였다.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다. 경남 출신과 경북 출신 가리지 말고 뭉치자는 거였다."

예전에 쓴 글을 다시 인용했지만, 이차

렵 정치인들이 악용한 지역감정은 이후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마저도 '지역감정야말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망국병'이라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틀었던 지역주의는 지금 어느 정도나 극복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지난 총선 직후 어느 시인이 쓴 것이다. 내용은 "지역주의, 오직 영남 TK에만 있다. 착각하지 마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영호남 똑같은 지역주의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영남 사람 당신들 착각이다. 사실만 비교해 준다. 영남은(거기서 소신 투표하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전제로) 지역주의의 맛. '우리가 남이가?' 여기서 한 걸음도 못나갔다. 그나마 경남·부산에서 소신 투표가 반짝하고 빛났을 뿐이다. 그럼 호남은? 대개 지역주의를 주장하고 개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호남이 영남보다 더 압도적인 몰표를 줬는데 지역주의가 아니라고?' 맞다. 분명히 말하는데 호남의 몰표는 지역주의의 결과물이 아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호남이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안철수 신당을 지지했던 일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영남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TK처럼 '묻지 마 몰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남원에서 낙산산 공원을 용서하지 않은 일, 목포의 박지원까지 그동안 호남을 대표해 왔던 유명 정치인들을 모조리 떨어뜨린 일 등. 이는 TK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민이라 했다.

어느 시인의 영남 비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글을 올리면 꼭 묻는 사람 있다. 너 호남 출신이냐? 내 어머니 강원도(화천), 내 아버지 서울(영등포) 사람이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다."

호남 출신도 아니면서 이런 글을 써 주다니 고맙기는 하다. 그렇다고 이 시인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몰표 찍으며 변하지 않는 호남을 두고 무슨 애간지...'라는 댓글도 보인다.

그야말로 나는 지난 총선의 영남 표식

을 분석해 볼 때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됐다고 느끼는 편이다. 민주당은 대구 지역 구 12곳에 후보를 내 이 중 11명이 20% 이상 득표했는데, 4년 전엔 4명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부산(18곳)의 경우 40% 이상 득표한 민주당 후보가 16명으로, 20대 총선(8명)의 두 배가 됐다. 대구도 될 수 있다. 울산의 정당 투표율을 보면 범여권이 미래한국당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쯤 되고 보면 경상도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카토그램(실제 면적과 관계없이 당선자 수만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지도)으로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영남 지역은 거의 핑크빛으로, 호남을 비롯하여 지 대부분 지역은 파란빛으로 물들었다. 출렁이는 푸른 물결 속에 경상도만이 '붉은 섬'으로 남는 것이다.

과거엔 전라도가 외로운 섬일 때가 많았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경상도가 섬이 됐다. '경상도 공화국'. 아, 이런 날도 오는구나.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사람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 그러나 공룡이 된 여당은 늘 가슴에 새겨야겠다. 세상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학생들 마스크 실내에선 반드시 착용해요”

운동장·야외 수업 땐 미착용
보건용·면마스크도 사용 가능
착용법·손 소독제 이용 설명

방역당국이 27일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작에 맞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소규모로 수업할 때도 마스크를 벗는 게 가능하지만 토론·영어 수업처럼 말하는 시간이 많을 때는 비말(침방울)이 튀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방역 체제 내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칙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 머무를 때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토론이나 영어 수업처럼 학생들이 소리 내어 말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물론, 면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고 일상에서 쓰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예시도 담겼다.

운동장, 야외 수업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잠시 벗으면 된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이 숙지해야 할 권 고 사항도 이번 방역 수칙에 담겼다. 각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시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을 설명하고,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손 소독제를 뒀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가급적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만들어나갈라'며 학생들을 배려해줄 것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보이는 것과...' 5·18 특별전 27일 광주시 동구 5·18민중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 5·18민중화운동 40주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특별전이 열렸다.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넓은 DJ센터, '안전한 시험 장소' 각광

한전·전대병원 등 1000명 이상 시험 예약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안전한 시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각종 대기업 채용 및 자격증 시험이 재개되면서 바이러스 차단과 안전한 방역시스템이 갖춰진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전남대병원이 각각 다음달 13일과 14일 센터에서 약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신입 사원 채용 시험을 불 예정이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 한전 KDN의 채용 시험이 예정돼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자격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 취직을 위한 시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수요도 줄을 잇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개 기관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험 장소로 사용했거나 예약을 확정된 상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개 기관이 시험을 본 것에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센터는 대형 행사도 열리는 1층 다목적홀과 4층 컨벤션홀을 시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1인 1책상 운영과 함께 1.5m 거리 두기 준수, 입·출구 동선 일원화, 손 소독제·열화상 카메라 배치 등을 통한 방역에 힘쓰고 있다.

센터는 '안전 시험장' 특화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인사담당자 등을 적극 접촉해 센터만의 넓은 공간을 활용한 장점을 살린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대형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시험 장소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기관들의 시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역과 감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6. 23(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6. 16(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사람찾음

본명 조영진 씨
서울에서 스쿠알렌 사업했을 때 이름 김홍삼 연락요망.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갑니다.

신은선 010-3305-9974

기적의 침술
현대의학으로 잘못치는 병

고혈압, 당뇨병, 중풍마비
불치의 통증, 남녀성욕감퇴

고대의술침을 한번만 맞으면
단한번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부산 010-8491-2060

분실공고
•분양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64-55, 무등산자이&어울림 202동 704호
•계약자 : 정 고 은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5월 28일

채권자의이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0년 5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총액 금5,000,000,000 원 중 금290,000,000 원을 감소한 금4,710,000,000 원으로 하고, 당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우선주 29,000주를 무상소각의 방법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500,000주를 471,000주로 감소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주권을 당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우미동태(재미에프비)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김병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이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그린이엔씨(이하 "갑")와 주식회사 타빅스(이하 "을")는 2020년 5월 27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지 않으며 "을"은 존속하며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주식회사 그린이엔씨
광주광역시 북구 지산마을길 42-19(자야동)
대표이사유송중
"을" 주식회사 타빅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9길 15(개화동)
대표이사권민준

先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산행안내

6월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3일(수) 전남 신안 비금도 선양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6:00, 교직원공제회관 06:10, 예술회관후문 06:20, 각화동 현대물류양 06: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6일(토)
▲광주금당산악회 6월6일(토) 여수 남도 상산 해안트레킹,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6월10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0일(수) 충북 제천 동산-자성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양 07: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17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7일(수) 경남 거창 우두산-의상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양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